‘來無來 去無去’ 만장…대종사의 원적을 장엄하다

자승 대종사 조계사 분향소 조문 행렬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와도 옴 없고 가도 감 없다”
진우 스님 ‘일체유심조’ 휘호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외에도
교구본사 · 종회 · 단체별 조문
정 · 관계 인사들 발길 계속돼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12월 1일 조계사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헌향하는 모습.

윤호섭 · 임은호 · 김내영 기자

조계종 제33 ·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상월결사 회주로 수행과 전법의 가치를 대중에 전하다 지난달 29일 원적에 든 해봉당 자승 대종사. 종단의 가장 큰 어른인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자승 스님의 삶을 ‘무거무래(無去無來)’로 표현했다. 시작도 끝도 없이 항상 존재해 진여가 무한함을 이르는 말.

성파 대종사는 12월 1일 오후 2시께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자승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교역직 종무원과 함께 분향소에 들어선 성파 대종사는 자승 스님 진영을 말없이 바라본 뒤 헌향했다. 이어 성파 대종사는 만장에 휘호를 쓰기 위해 경내 가설 천막으로 자리를 옮겨 ‘來無來 去無去’라는 여섯 글자를 남겼다. 성파 대종사는 “와도 옴이 없고 가도 감이 없다”고 짤막한 설명을 덧붙였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오후 1시께 만장 휘호를 썼다. 진우 스님이 쓴 휘호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였다. 수많은 대중법문을 통해 마음에 따라 업이 쌓이고 그로 인해 괴로움도 생겨나듯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고 설한 가르침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다.

한편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분향소 조문은 전날 오후 3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조문을 올린 건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총무원 교역직스님들, 전국에서 온 교구본사주지스님, 중앙종회의원스님, 서울 주요사찰 주지스님들이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교육원장 범해 스님, 포교원장 선업 스님,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등 60여 스님들은 굳은 얼굴로 자승 대종사의 진영 앞에 섰다.

대표로 분향하기 위해 나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허탈한 표정으로 한동안 자승 대종사의 진영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종단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듣고자 자주 찾을 수밖에 없었던 대종사의 갑작스런 원적은 진우 스님도 이겨내기 어려운 슬픔이었다.

스님들의 조문에 이어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유정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등 신도 · 포교단체장들이 분향소에 들어섰다. 또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을 비롯한 전국비구니회 소임자스님들과 비구니종회의원스님들도 차례로 조문했다.

정관계 인사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장 먼저 분향소를 찾았다. 오후 3시 30분께 조계사에 방문한 유 장관은 방명록에 ‘자승 큰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라고 추모의 글을 적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온 유 장관은 “자승 큰스님께서 15년 전 총무원장 하실 때 (저도) 문체부 일을 했으니까 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 옆에서 뵈었다”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지금은 너무 황망하다. 정말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란다”고 추도했다.

뒤이어 최응천 문화재청장도 분향소를 찾아 자승 대종사 영전에 헌화하고 삼배를 올렸다. 최 청장은 “상월선원에서부터 자승 스님 행적을 지켜봐왔고 인도순례를 다녀오셨을 때도 인사드렸다”며 “한국불교를 일으키실 분이라 생각했는데 (입적하셔서)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총무원장을 두 차례 역임하고 퇴임 이후에도 한국불교 중흥과 종단발전을 위해 온 몸을 내던진 자승 스님 원적에 스님들도 안타까움을 표하며 종단이 보다 굳건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는 걸 강조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어른스님께서 소신하셨지만 상월결사 정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종단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종정예하와 원로회의,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중앙종회 등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오는 6일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후 7시 20분께 분향소를 찾아 자승 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정청래, 서영교, 유정주 국회의원 등도 함께했다. 방명록에 ‘극락왕생 하소서’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긴 이재명 대표는 조문 후 기자들을 만나 자승 스님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큰 가르침을 주신 어른”이라고 회상했다.

앞서 주호영 국회정각회장과 이원욱 정각회 명예회장은 정각회원들과 오후 5시 30분께 조문하고 자승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큰스님의 원적에 애도한다”며 ‘한국불교 중흥의 원력을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주호영 회장은 “황망함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청천벽력이라 정신이 없다”면서 눈시울을 붉히고 말을 잇지 못했다.

조문에 함께한 이원욱 정각회 명예회장은 “스님께서는 진정한 부처님이셨다”며 그리움을 표하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큰 족적을 남긴 스님의 뜻을 따라 더욱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문 3일차인 12월 1일에는 더 많은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먼저 분향소를 찾은 건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오전 9시 20분께 조계사를 방문해 방명록에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화합의 정치 이루겠습니다’라고 글을 적었다. 오 시장은 조문 이후 “평소 큰스님께서 화합을 강조하신 만큼 화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박용진 국회의원도 잇달아 조문에 동참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유일하게 정치권에서 형제간 정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자승 대종사를 회고하면서 “스님께서 늘 김성태 잘 있냐고 덕담을 해주셔서 더 가슴이 아프다”고 슬픔을 표했다.

박용진 의원은 “스님께서 며칠 전 전화하셔서 여러 조언을 해주시고 곧 보자고 하셨는데 갑자기 입적하시니 크게 놀랐다”며 “스님께서 한국불교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신 부분은 국민이 기억할 것이다. 이제 남은 분들이 잘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회의원과 이진복 정무수석도 불교중흥을 염원한 자승 대종사의 원력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복 수석은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저도 굉장히 오랜 인연을 갖고 있다. 호도 내려주셔서 잘 쓰고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다. 좀 더 계시지 왜 이리 바삐 가셨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전 중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50여 명이 조문을 위해 조계사를 찾았다. 여당 지도부 조문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자리해 받았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자승 대종사의 원적을 ‘선택적 자살’이라고 표현한 일부 언론 표현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문을 열었다.

진우 스님은 “수행자들의 삶은 일반인과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소위 차안과 피안,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와 이를 떠난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가 있다”며 “큰스님께서는 평소 하시는 일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하시면서도 불교의 근본 목적인 해탈, 열반, 성불,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 항상 그 경계선상에 계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지금까지 나온 여러 정황상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기간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다만 그 시기가 이때였다”며 “일반인은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수행자들에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이상 그 이하 (무언가) 더 덧붙이거나 왈가왈부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자승 대종사 조계사 분향소는 대통령실 각 수석과 부처 장관, 국회, 지자체장, 이웃종교 대표 등 불교계뿐만 아니라 정관계에서 수많은 인사들이 다녀갔다.


12월 1일 여당 지도부 조문에서 자승 스님의 소신 공양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대표스님들이 조문하고 있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 입적 추도문

대한불교조계종의 선지식(善知識)이며 상월결사 회주로서 현대 한국불교 사부대중의 수행과 전법의 기치를 높이 세우셨던 해봉당 자승 대종사님께서 지난 11월 29일 입적(入寂)하셨습니다.

무릇 제불(諸佛)의 본원(本源)은 청정하고 오묘하여 형상이 없지만, 중생의 번뇌와 고통이 가득한 사바세계에서 사부대중의 큰 의지처이셨습니다.

자승 큰스님께서는 살아 계실 때는 무문관 수행과 길위의 전법을 통해 불성(佛性)의 본원을 참학(參學)하셨던 길위의 수행자이셨고, 입적하신 뒤에는 무생(無生)의 안락(安樂)을 버리시고 세상과 중생의 구제를 발원하시는 원력(願力)의 법신(法身)이십니다.

자승 큰스님께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과 제33,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시면서 격변의 혼란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종단의 위상을 높이셨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사찰예산회계법’, ‘사찰운영위원회법’ 등 종법을 개정하여 사찰재정 투명화의 발판을 마련하셨고, 중앙징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종단의 청정과 사법제도 개선에 노력하셨고, 사회에 팽배한 노사갈등 중재를 전담할 노동위원회의 발족을 통해 사회의 갈등을 화쟁(和諍)의 가르침으로 통섭하셨습니다.

조계사 성역화 불사와 승려복지의 기틀 마련 등 종단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하신 분도 바로 자승 큰스님이십니다.

총무원장직에서 물러나신 뒤에는 상월결사를 조직하여 회주로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앞장서셨고,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를 설립하여 동국대학교가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과 각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이처럼 큰스님의 업적은 산처럼 높고 강변의 모래처럼 많아서 전도미혹(顚倒迷惑)의 중생들에게 현실의 난관을 돌파하고 새로운 불교실천의 길과 중생제도의 활로(活路)를 열어주셨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총무원장을 연임하면서 낮에는 종단의 행정을 살피시는 한편, 날이 저물면 불조(佛祖)가 부촉(咐囑)한 심인(心印)을 향해 백척간두(百尺竿頭) 진일보(進一步)의 두타정진(頭陀精進)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특히 큰스님께서는 세간과 출세간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대중마다 그 근기에 맞게 자애(慈愛)의 가르침을 보여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새로운 활력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자승 큰스님께서 남기신 자비섭화(慈悲攝化)의 원력과 행장을 가슴에 새기고 종단 집행부와 함께 뜻을 모아 지도자를 잃은 참담한 슬픔을 딛고 혼란의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큰스님께서 마련하신 초석(礎石) 위에 종단 미래의 당우(堂宇)를 세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큰스님 열반의 세계에 오래 계시지 말고 속히 저희 곁으로 다시 돌아오소서.

불기 2567년 11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